

# 생똥맞은 광주시 '1가구 1명 검사 받기' 실효성 있나

### 설 앞두고 코로나 확산 차단...60만건 이상 검사 막대한 예산·인력 불가피 감염병 전문가 "터무니 없는 시책"...일선 보건소들, 일방통행식 행정 불만

광주시가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1가구 1명 검사받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60만건 이상의 검사를 진행해야 할 일선 보건소 등에서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감염병 전문가들도 "광주 실정에 맞지 않은 방역행정"이라며 "시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불가피한 이번 결정을 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한달동안 '1가구당 1명 진단 검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광장도 광주 5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검사를 독려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민족 대명절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검사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루 검사 숫자에 한계가 있어 전체 검사는 어렵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특히 외부 모임 잦은 분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12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5만여명, 가구는 모두 63만3582세대(세대당 평균 인구 2.29명)로, 가구당 1명씩 검사를 받을 경우 모두 63만건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광주시의 지난 1년간 누적 검사 건수(46만9237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많은 숫자다. 이를 검사하기 위해선 진단키트 값만 최소 20억원(류염 검사 기준)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 같은 광주시의 '1가구 1명 검사받기' 캠페인 소식을 인터넷 뉴스 등으로 접한 일선 보건소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민관 공동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감염병 전문가는 "1가구 1명 진단 검사를 한다는 내용을 언론기사를 통해 봤는데,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이와 같은 검사를 시행할 정도로 무중상 감염자가 많지 않다. 무슨 근거로 터무니 없는 검사를 시행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시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방역현장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더기 검사 시행을 발표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단순히 검사키트 구입비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보건소도 당황하기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보건소장은 "광주시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보건소 입장이지만, 지난 1년간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에다 기존 보건소 업무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업무가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인터넷 뉴스를 보고 1가구 1명 진단검사 사실을 알았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들다면 업무 과중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코로나 백신 의료인 최우선 접종

### 예방접종 대응 협의체 첫 회의 내달 초 2000명분 배정 예상

정부가 오는 2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가 우선 접종 권고 대상자 선정 등 접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코로나 19 백신 접종 관련 민관협력체계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접종 추진 기본 목표,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접종 방식 등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우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접종을 시행해 최소 70%의 도민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백신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은 전 도민(185만명)으로, 이 가운데 102만명 가량을 우선 접종 권고 대상자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 요원, 집단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관심이 쏠리는 2월 초도 백신 물량 접종 계획도 구체화했다. 국내 반입 예정인 초도 백

신 5만명분과 관련해 전남도는 지역 배정 물량은 2000명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2000명분의 초도 백신을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500명 안팎의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 남은 초도 백신은 도내 요양병원의 의료진,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 국장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설(2월 12일) 무렵 화이자 백신 5만명분이 국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비율로 하면 전남 배정 물량은 약 2000명분"이라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3곳의 공공병원과 요양병원 의료진을 우선 접종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및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 내달 초 코백스의 초도 백신 물량은 5만명분 규모로,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확정해 오는 28일 공식 발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시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 광주 여행업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재난지원금 지급해달라"

### 사실상 영업정지 1년간 매출 제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지역 여행업계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여행업계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영업정지(집합금지)

상태로, 1년 이상 매출 제로라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유형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업계는 여행업이 매출 감소로 인한 일반업종으로 분류됐으며 사실상 영업(집합)금지에 해당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여행업계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여행 자

제를 호소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모진 시간을 견뎌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코로나19 종식만을 기다리며 버티기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생존 비용 지원, 세금·대출이자 감면, 공공 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정, 공유 오피스 지원, 힐링 프로그램 개설 등을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흑산공항 착공 등 서남권 거점공항 역할 정립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통합관광 사업과 기반·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또 올해 광주공항에 남아 있는 국내선을 이전하고, 수년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발목이 잡혀 있는 흑산공항 착공 등 무안공항의 도약을 위한 선결 조건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남도여행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이용 활성화 공모전'을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한국 통합관광 사업(KTTP)'에 214억원을 투입해 국제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무안공항과 관련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 흑산공항이 개항할 경우 이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 역시 가능해져 전남의 해양·섬관광이 본격 도를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이어지면 무안국제공항이 국내 및 동북아 국제관광수요를 견인할

새로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 최남단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흑산도에 오는 2023년까지 공항을 설치할 예정으로, 오는 3월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공원 변경안에 대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5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로, 전남도는 대체 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무인 안내·셀프체크인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이용 방식의 무인·자동화로 탑승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수시로 도입국약단 공연 등을 펼쳐 탑승대기 공간을 관광, 휴식, 비즈니스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중장거리 아·작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기존 2.8km에서 3.2km로 연장하는 사업이 2023년 완료되면 유럽·미주 등 모든 노선이 다양화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인 국제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65입5만원

##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 분할공고

2021년 1월 25일 개최된 주식회사 상록개발(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03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당사회 (초정시계공사 (등록번호무안14-16-0282),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번호무안14-99-0183)) 편파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상록(분할대상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분할회사의 발행주식 22,500주를 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표에 따른 일부 사업장도 외 자본감소액 이하가 있는 하나, 본 회사의 주주들은 본 공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하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바랍니다.

(1) 영도(분할대상) (초정시계공사 (등록번호무안14-16-0282),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번호무안14-99-0183)) 주주회사 상록개발 무안군 상향읍 우정대로 282 대표이사 신영이

(2) 영도(분할대상) 2021년 2월 25일 주주회사 상록개발 무안군 상향읍 우정대로 282 대표이사 신영이

(3) 영도(분할대상) 주주회사 상록개발 무안군 상향읍 우정대로 282 대표이사 신영이

(4) 영주(분할대상) 주주회사 상록개발 무안군 상향읍 우정대로 282 대표이사 신영이

(5) 이외의주주(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6) 제출처: 주식회사 상록개발 (61-287-0066)

## 정정공고

본지 2021년 1월 25일자 게재된 대양중합솔라링주식회사와 신한랜드주식회사의 공고 중 신한랜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숙을 대표이사 김용일로, 전남 단양군 창평면 창평현로752-1(삼천리)를 전남 단양군 창평면 창평현로752-1, 2, 2층(삼천리)로 정정 공고함.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2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남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 남부	675-5530
• 배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천단	973-2900
• 현남	955-0451
• 광산	944-0444